

System on Chip 소재 집중육성

정부, 5년간 7000억원 투입 ... 치매 치료제 AAD-2004도 실용화

IT(정보기술) 융·복합화 추세에 대비해 2006년부터 5년간 약 7000억원을 들여 칩 하나로 여러 기능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고밀도·고집적 반도체인 IT-SoC(시스템 온 칩) 분야를 개발하는 등 IT부품 소재 부문이 집중 육성된다.

정부는 11월24일 롯데호텔에서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제12회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열어 치매치료제 AAD-2004 개발계획 등 4건의 안건을 상정·결정했다.

정부는 IT 부품소재산업을 집중 육성키 위해 향후 5년간 모두 6954억원을 투자해 IT-SoC 분야를 집중 개발하는 등 IT부품소재산업 육성·발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SoC는 여러 반도체를 하나의 기판에 모아 시스템을 구현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반도체 칩에 하나의 시스템을 구현하는 고밀도 고집적 반도체 기술로 차세대 IT 핵심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2010년까지 세계 3대 IT 부품·소재 강국으로 부상한다는 방침 아래 IT-SoC 분야 전문인력 6000명을 양성하는 한편 매출 1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을 15개 가량 육성함으로써 세계 시장점유율을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조직과 인력을 재편성해 IT부품·융합연구센터(가칭)를 설립하고 78개 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또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와 와이브로(휴대인터넷) 등 첨단·신규 서비스를 조기 도입해 시스템-부품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디지털홈과 유비쿼터스 로봇 등 IT839 시범사업도 추진해 초기시장을 형성키로 했다.

정부는 알츠하이머병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는 AAD-2004의 약효와 동물 독성평가 등 전임상시험과 인체에 대한 1단계 임상시험을 추진해 치매 치료물질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우수 임상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실용화사업단을 구성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사업관리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2006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소요되는 총 200억원의 재원은 정부 연구개발비 120억원과 참여기업인 뉴로테크가 부담하는 80억원으로 충당하고, 연구개발협약에 따른 기술료와 코스닥·나스닥 상장을 통해 연차적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키로 했다.

정부는 뇌질환 치매치료제 1단계 임상시험이 성공리에 끝나면 2009년 7000억원의 기술가치가 창출되고, 이어 추가적인 연구를 거쳐 본격적인 시장형성이 이루어지는 2013년께는 세계 치매약물 시장의 최소 5%를 차지함으로써 연간 40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바이오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8개 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바이오실무협의회를 신설하는 한편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자원 마련을 위해 글로벌 신약펀드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부처별로 분산 운영중인 임상·전임상 인프라 등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바이오 인력양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이밖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감시하는 굴뚝자동감시체계(TMS) 핵심기술도 국산화해 해외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학저널 2005/11/25>